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원

농업인 단체에 야외작업용품 전달...온열질환자외선 노출 예방 지원

정재길 기자

승인 2026.08.07 16:38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 영농활동이 많은 지역 농업인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23일 지역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폭염 극복용품인 선크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온열질환과 자외선 노출에 따른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의령지사는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크림을 전달하고 폭염 속 건강관리와 안전한 야외활동을 당부했다.

농업인은 작물 재배와 농업시설 관리 과정에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기온이 높은 시간대의 작업은 온열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햇볕 노출 최소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재경 의령지사장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현장 영농활동에 애쓰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물품이 농업인들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지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와 농업기반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과 봉사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길 기자 ynkiler@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